

생산직 여성노동자 모성 파괴 심각, 생명 위협도

평생직장 확보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건강한 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올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성의 해’로 선포되었던 90년을 마무리하면서 각 여성단체들은 모성기능에 관련된 조사결과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모성보호의 현단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일하는 여성들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직장노동의 삼중고에 시달려 모성기능의 파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해 병들어 가면서도 기업이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범한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자 박금미 씨의 하루 일과에서도 삼중고노동으로 허물어지는 모성의 현실을 볼 수 있다.

독산동에 거주하는 박금미(27) 씨는 5년전 결혼해 4살된 아들을 두고 있으며 방배동에 있는 중규모 봉제공장에 다니고 있다. 다른 기혼 여성노동자가 그렇듯이 박 씨도 집안일, 아이기르기, 공장일에 숨돌릴 틈 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다.

아침 6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아침식사, 집안청소를 대충 끝내고 아들 두산이를 씻겨 놀이방에 데려가는 시간이 7시30분이다. 방배동 공장까지는 마을버스에서 전철로 또 일반버스로 세번을 갈아타고 9시가 조금 못되어 도착한다. 남들보다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 이 공장은 그래도 환기도 안되는 집 근처 지하공장들보다는

환경도 좋고 대우도 괜찮은 편이다.

그래도 아침부터 옷감을 재고, 자르고, 재봉질에 뒤통질까지 정신없이 하다보면 12시. 40분간 식사와 휴식이 끝나면 똑같은 작업이 6시30분까지 계속된다.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루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거나 내내 서서 일하다 보면 저녁때는 다리가 빠근하게 부어 올라 걷기 힘들다. 박 씨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들은 만성 요통과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어 가끔 자신의 10년 후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나마 다른 사람들이 8시나 돼야 퇴근하는데 박 씨는 특별히 6시30분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 꽤 다행스러운 일 중 하나다. 7시면 놀이방문을 닫기 때문이다.

지친 몸으로 놀이방에 도착한 시간은 7시40분이다. 집에 가자마자 저녁식사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끝내면 빨랫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놀이방 ‘어머니모임’이 없을 때는 빨래를 하고 나면 12시가 다된다. 하루라도 빨래가 밀리면 1시에나 겨우 하루가 끝난다. “휴!” 6시부터 밤12시까지의 쉴 틈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큰 숨이 절로 나온다. 하루를 정신없이 살지만 박 씨는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열심히 사는 것이 기쁨 뿐이다.

하지만 결혼하고 정신없이 보낸 것도 5년. 이제 몸도 전갈지 않아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저려와 반듯이 펴 수가 없다. 방배동 공장 아주머니들끼리 반쯤 우스갯소리로 그것도 직업병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자신의 하루를 소개한



생산직 기혼 여성노동자들은 주 평균 88.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박 씨의 소망은 ‘놀이방의 탁아시간을 늘리는 것’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박 씨가 일하는 시간은 공장에서 8시간과 집에서 약 4시간 30분으로 12시간30분이며 도중에 차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15시간30분. 에누리없이 박 씨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다.

박 씨는 그래도 다른 기혼 여성에 비해 건강하고 좋은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편이다. 얼마전 <기독여민회>와 <노동과 건강연구회>가 조사한 <방제·전자업종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노동자실태>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의 노동시간은 주평균 54.3시간이며 가사노동 시간은 주평균 34.3시간으로 모두 88.6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업환경도 벤젠이나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환기시설도 없고 개인의 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절반정도로 매우 열악하다고 조사되었다.

이런 과다한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은 임신, 출산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이 26세에서 35세사이의 기혼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월경주기가 불규칙하고(55.7%) 생리휴가가 없는 경우가(56.3%)가 반이 넘으며 출산 후 몸조리는 일주일 정도가 50.4%로 대부분이고 9.2%는 3일도 안되어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여성노동자들은 건강이 악화되는 정도를 넘어 생명을 잃기도 한다.

이런 살인적 근로조건의 피해는 작년에 오리엔트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수은중독사태와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에서 심각하게 드러났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중외제약에서 마취제 제조작업을 하던 여성노동자 7명이 마취제에 중독되어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했다.

약물에 의한 신체의 이상은

임신자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임신중 기형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유산이나 장애아 발생을 높게 된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은 유해물질로부터 격리시켜야 하고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해 모성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다.

오리엔트전자에서도 수은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환풍기조차 없는 상태에서 먼 마스크만 쓰고 일하다가 중독돼 5명 정도의 노동자가 노조를 통한 1년여의 투쟁끝에 요양치료를 받고 작년 말부터 공장에 복귀했다.

원진레이온의 경우는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가스를 배출시키지 않고 일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70여명의 노동자가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작업장에서 문제가 된 이황화탄소는 공장 근처 소나무가 모두 죽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모성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10년을 근무하면 불임증에 걸려 처녀와 유부녀는 고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노동자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여성노동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작업환경과 과다한 노동시간으로 허물어진 모성은 최소한의 법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앞서 거론된 조사에서도 생리휴가가 실시되는 직장은 40%정도이며 산전산후 휴가를 실시한 직장은 17%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급휴가나 휴직제도를 알아도 회사의 압력으로 눈치보기에 급급, 결국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급수유시간, 육아휴직, 탁아시설이용, 임신시 경미한 작업으로서의 전환 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으며 아울러 실천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노동자의 76%가 직업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이 기업과 정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직적인 단결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나영희 사무차장은 “90년에는 모성보호에 대해 노동자의 인식을 확대하고 자본가와 정부의 대안을 촉구하는 선전과 교육에 치중했다. 내년에 모성보호문제는 여성의 평생직장확보문제와 연결해 더욱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풀어갈 예정”이라고 밝힌다.

(홍미영 기자)

다음주는 신정연휴로 정기휴간